



영웅강산

7

주체112(2023)
루게 제407호 월간



표지: 전승세대에 드리는 꽃다발

위대한 전승신화를 안아온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넋이 맥맥히 살아숨쉬는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찾
아 새세대들이 꽃다발을 드린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해도 귀중한 조국을 지켜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친 영웅들의 넋은 자라나는 새세대들
의 마음속에 조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리명국



2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14 || 7. 27, 위대한 전승은 이렇게 마련되었다

20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4)

26 || 나의 의무는 끝나지 않았다

27 || 《강대성》의 신화는 깨어졌다

28 || 석박산기슭에 피는 꽃들

일 화

30 || 위민헌신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31 || 수정공예 《개선》

32 ||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수 기

33 || 사랑의 기념사진을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34 || 합작은 불가능한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하여

36 || 높은 비료생산실적으로

38 || 경공업발전을 추동한다

40 || 옥류아동병원

44 || 평양광학기술사

46 || 미지의 세계를 파헤치며

48 || 부부체육교원의 지향

50 || 현대알록반죽자기와 유관준

조국의 품에 안겨

54 || 보답의 일념을 안고 걸어온 의학연구의 40여년

고향소식

56 || 화강석산지로 유명한 고장

58 ||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만고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한 국가들

60 || 고려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62 || 사실주의풍경화가 정선

조선의 명산

64 || 칠보산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2(2023)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전진목표와 전략전술적원칙에 따라 국가의 리익과 안전환경을 견결히 수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국면을 새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올해의 주요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하반기도의 진군로정에서 반드시 대책하고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부서 일군들, 도, 시, 군인민위원장들, 도농촌경리위원장들, 성, 중앙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었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1. 올해 주요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2.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조치에 대하여



3. 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4. 인민주권강화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5. 당규률건설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대책에 대하여

6.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첫째 의정 《올해 주요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상반기기간의 간고하고도 격렬한 투쟁환경속에서 이룩한 혁혁한 성과들이 총화되었다.

그 어느때보다 무모한 광기를 부리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들의 군사적모험책동과 반동공

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과 발전리익을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였다.

비록 주객관적형세는 불리하였지만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으로 난국을 타개하면서 당건설과 국익수호, 경제건설, 문명건설을 비롯한 각 방면에서 고무적이고 전진적이며 자부할수 있는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당중앙이 국가경제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며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한데 대하여 보고는 개괄하였다.

나라의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것을 관건적인 문제로 내

세우고 영농물자보장과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올해 제시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조치들을 각방으로 취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석탄, 기계, 림업, 철도를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이 전진할수 있도록 중대조치를 취하고 인민경제계획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운 결과 년초에 여러 부문에서 나타났던 불안정한 파동성이 현저히 극복되고 경제건설의 각 분야에서 생산장성률이 뚜렷하게 높아지고있다.

보고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관개건설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

고 평남탄전에서 타오른 사회주의 애국탄증산운동의 불길은 전국각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로 대대적으로 파급, 확산되고있으며 경제발전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이 애로와 난관을 완강히 극복하며 높아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앞장에서 전진하고있다.

건설부문에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준공한데 이어 추가된 2,000세대 살림집건설을 끝내고 대평지구 1,400세대 살림집건설을 결속하였으며 새로운 농촌마을들을 련속 일떠세워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과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현재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강동온실농장건설, 검덕지구 살림집건설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전체 인민의 심장속에 당의 령도는 과학이고 승

리이라는 철석의 신념이 더욱 역세계 자리잡고 총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변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의지가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된것이야말로 그 어떤 경제적장성에도 대비할수 없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

보고에서는 상반기기간 국가경제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발로된 일련의 결점과 폐단들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분석과 극복방안들이 언급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농업의 지속적, 전망적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현실적인 과업들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상반기년도 경제사업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

이 엄정히 분석되었다.

올해 내세운 높은 투쟁목표들과 전면적발전으로 나아가는 현실은 국가경제의 기둥인 주요공업부문들이 생산에서 편파성을 극복하고 이미 도달한 장성계선을 공고히 하며 보다 기세찬 투쟁으로 경제전반의 새로운 고조를 견인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의도는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들에서 추진하고있는 정비보강대상들과 개진현대화대상들을 완공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하반기에는 자립경제의 속살을 다지는 의의있는 준공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보고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서 공사량이 제일 많은 올해 각 건설지휘부들에서 건설자들의 양양된 투쟁열의에 맞게 건재보강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설계와 시공의 질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완강한 공격전으로 공사일정을 드림없이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긴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새기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청년들의 고조된 애국열의가 빛나는 위훈창조, 기적창조로 이어질수 있도록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고무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현시기 당에서 중시하는 정책적과업들의 실행정형에 주목하였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육아정책의 집행실태를 상세히 분석총화하였다.

지난 2년간 도, 시, 군들에서 젓생산량을 늘이고 제품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젓제품을 공급하는 체계와 질서가 정연하게 수립되어 탁아유치원년령기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젓제품을 먹을수 있게 된것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제일 뚜렷한 변화의 하나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육아정책집행정형을 단위별로, 내용별로 우결함을 정확히 찾아 총화하고 젓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며 일관성있게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할데 대한 문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재정금융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답게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 장악보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었다.

보고는 자립, 자력으로 국가부흥과 번영의 앞길을 확신성있게 열어나가자면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핵심전략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척후병, 주력군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과학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과학기술인재들을 통일적으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과 현시



기 과학기술발전의 중요목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보고는 우주산업의 확대발전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것이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주분야개척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부단히 확대, 장성시켜 전망성있게 우주산업의 개척로를 열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서는 국가적인 우주과학기술잠재력을 총발동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킬 필수적인 기구적조치를 제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정부의 정책집행을 보위사업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야 할 보위, 안전기관들의 사명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해당 부문들에서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책략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오늘 달라진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자위력강화에 더 큰 힘을 넣으며 공화국무력이 갖추고있는 무장장비들을 부단히 갱신해나가야 할 당위성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분석평가가 언급되었다.

견잡을수 없이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되는 조선반도안전환경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군사적잠재력의 부단한 갱신과 자위력강화를 향해 더 빠르게 질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조선로동당의 엄숙한 선언에 따라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들을 성공적인 실체로 전환시킨 실천적인 행동들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우리의 급진적인 전략무력건설속도와 강력한 군사기술력을 시위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뢰들



을 불가극복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공화국전략무력이 고도화된 군사기술력에 있어서나, 무기체계발전속도에 있어서나 자라가 공인하는 진보를 이룩하고 현존하는 위력적실체로 장성강화되고있는 좋은 성과들을 평가하고 반면에 일각에서 나타난 간과할수 없는 결함들도 엄정

히 총화하였다. 보고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군사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정찰정보능력을 제고하고 우주개발분야에서 더 큰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을 마련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이 제시되었다. 핵, 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개발부문

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나라의 핵전쟁역제력강화의 중요한 고비에서 크게 내짚은 훌륭한 걸음으로 된다고 확인하면서 정치국은 국방부문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핵무기발전방향과 핵력량증강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강위력한 핵무기증산실적으로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억척같이 보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공화국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심각히 분석평가되고 이에 군사기술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절박성이 언급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적들이 의도적으로, 로골적으로 고취하는 군사적긴장격화책동에 대항하여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조치들을 지체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전원회의는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방안들과 대응방식들을 일치각결로 승인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격돌하는 국제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미국의 강도적인 세계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련대를 가일층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대외활동을 철저히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중대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보고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과 주객관적환경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필수적인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반년기간에 당의 질적공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당사업에서 시급히 극복하여야 할 결점들을 분석총화하였다.

보고에서는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관철하는 사업을 강력히 조직전개하여 당의 건전한 정치풍토와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당적조치들이 언급되고 올해 투쟁목표와 전략적과업관철에서 각급 당조직들이 주력해야 할 사업방향이 명시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악의 난관속에서도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치단합된 힘으로 분발하고있기에 우리 혁명은 반드시 새로운 발전국면으로 이행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올해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에 더 박차를 가하며 부여된



사명과 중임을 드림없이 과감하게 떠메고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확실한 상승의 궤도로 줄기차게 인도할 수 있는 방략들이 제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보고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내각총리 김덕훈

동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 전현철동지가 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당과 국가의 존위와 직결된 중대사를 걸머진 무거운 책무를 항상 자각하고 당결정관철을 힘있게 견인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면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

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을 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조치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동지가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개

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해당 부문에서 추진하여온 연구정형을 보고하고 전원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 《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는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전인기, 인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서

- 첫째 의정:** 2023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 둘째 의정:**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고 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 셋째 의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방법을 개선하여 인민주권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 다섯째 의정:** 당위원회 규률조사부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사업체계, 지도체계를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12 (2023)년 6월 18일

생활을 책임진 호주인 도, 시,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인민위원장들이 자기 지역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조성, 활동성을 적극 발휘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강조되었으며 패배주의에 빠져 맡은 사업을 주인답게 전개하지 않고있는 일부 인민위원장들에 대한 자료통보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 《인민주권강화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발언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인민의 대표이고 국정의 주인인 대의원들이 국가와 인민이 부여한 신성하고도 책임적인 위치를 자각하고 높은 정치의식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해나가기 위하여 대의원 선거방법을 개선해나가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국가주권의 인민적성격에 맞게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선거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연구한 새로운 대의원선거방법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최룡해동지는 대의원선거방법에 대한 연구를 전원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당규률건설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조용원동지가 발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이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자면 당규률건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선결적인 중대과업, 중요로선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조용원동지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나아가고있는 현시기 당규률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용원동지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에 립각하여 규률감독부문의 기구체계, 사업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연구한 정형을 보고하였다.

당규률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심화시켜 강철같은 규률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과 당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철저히 담보하며 조선로동당의 결백한 정치기풍을 변함없이 견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보강에서 현실적의의를 가지는 대책안이 전원회의의 심의에 제기되었다.

전원회의는 2023년 하반기도 투쟁과업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을 기안하며 의정토의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심의회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종확정한 결정서초안들을 전원회의의 승인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 결정서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의속에 조선혁명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문제들이 구체성, 전문성, 혁신성을 띠고 진지하게 토의결정된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올해의 방대한 투쟁목표들이 김정은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중앙에 대한 전체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에 의하여 빛나게 달성되리라것을 확신하면서 자기 사업을 마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의 숭고한 리념과 성스러운 위업이 성공과 승리의 높은 단상에 하루빨리 오를수 있게 백배의 자신심을 가다듬고 일심단결, 일심일체의 완강한 투쟁으로 전면적부흥발전을 보다 용의주도하게 추진해나는데서 자신들이 맡은 중대한 사명을 다해나갈 맹세를 다짐하였다.

* * *

7.27. 위대한 전승은 이렇게 마련되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주체42(1953)년 7월 27일 조국은 세계력사에서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는 기적을 창조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력사의 이날에 조국에서는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를 때 대양 건너 미국은 패전의 치욕으로 눈물에 잠겨있었다.

정전협정조인후 마이크앞에 나타난 당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구슬픈 어조로 《대가는 컸다. 이것은 비극적인 것이었고 쓰라린 것이었다.》라고 토설하였다.

미국의 정치가들과 군사가들은 조선전쟁에서

의 패배의 책임을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

하지만 《무기만능론》을 승패의 기본요인으로 보는 그들로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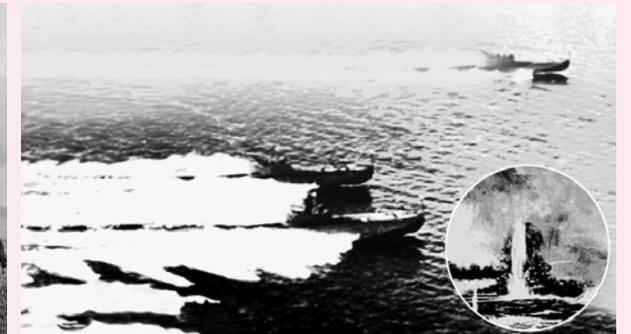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세계제패를 대외정책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침략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그 실현의 시작으로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새 생활창조로 들끓던 공화국에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9



조선인민군 비행사들은 적들이 《공중요새》라고 떠벌이던 《B-29》를 비롯한 수많은 비행기들을 격추, 격상시켰다.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상시킴으로써 세계해전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내각비상회의에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도록 하시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 송연설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 전기간 독창적인 군사리론과 전법을 적용하시였다.

전쟁초기에 벌써 조성된 정치군사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 적의 약점을 정확히 분석판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맞받아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미제가 전쟁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대병력과 군사장비들을 더 끌어들이기 전에 신속한 기동과 련속적인 타격으로 적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공화국남반부를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내리시였다.

하여 인민군군인들은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였다.

그이께서는 령활무쌍한 전법으로 대전해방작전도 승리로 이끄시였다.

주체39(1950)년 7월 위험을 무릅쓰시고 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탱크사냥군조운동,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독창적인 전법들이 창조되었다.



적의 탱크를 파괴하는 탱크사냥군조원



저격무기로 적비행기를 사냥하고있는 비행기사냥군조원들



적사포를 고지우로 끌어올리고있는 포병들



저격수조활동을 벌리고있는 인민군전투원

밤중에 림진강철다리를 건너 서울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이 당면하여 대전에 집결된 적들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명령을 내

리시였다. 그이의 작전전술적방침에 따라 진행된 대전 해방작전에서 미제침략군 24보병사단은 괴멸



파괴된 도로와 철다리복구를 진행하고있는 인민들



전선원호에 떨쳐나선 인민들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정규군련합부대들로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

을 형성하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현대전쟁의 특성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산이 많은 조국의 지형에 맞게 강도



전시생산을 벌리고있는 로동계급과 농민들



를 기본으로 하는 요새화된 방어진지를 굴설하고 적을 치는 독창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리도록 하시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211고지를 비롯한 불비쏘아지는 최전선들을 찾으시어 지휘관들에게 조선사람은 조선식으로 밥을 먹어야 하듯이 싸움도 조선식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강의한 인간들로, 용사들로 키우시었다.

위험천만한 철교앞에서 전선에서는 이 시각에도 전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주저하겠는가고 하시며 강을 건느시었고 전사들에게 공급할 솜신발을 어떠한가를 알아보시기 위해 무더운 여름날에 한주일나마 병사용솜신발을 신고다니신 그이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전시인민생활을 안정시킬데 대한 문제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토의하시고 전선에서 한명의 군인이 귀중한 때에 많은 군인들을 동원시켜 농민들에게 소금을 실어다 주도록 하시었다.

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 그것은 그 어떤 무장장비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힘이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인민들로 하여금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영웅성을 발휘할수 있게 한 사상정신적원천이였다.

하기에 인민군용사들은 적에 대한 증오로 온몸을 불태우며 팔다리가 부서지면 턱으로 중기의 압철을 눌렀고 적의 불구멍을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었다. 후방인민들도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을 위해 전식식량을 어김없이 보장하였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치는 강물속에 서슴

없이 뛰어들었다.

전쟁을 3일만에 끝내겠다던 미제의 호언장담은 3일이 300번도 더 반복된 1 129일만에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는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듯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을 때는 조국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섯해가 채 안되던 시기였다.

공화국과 정규군의 력사도 짧았고 무기도 부족하였으며 경제적잠재력도 미약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100여차례의 침략전쟁경험을 가지고있었다.

미제는 조선전선에 최신장비로 무장한 수많은 병력을 들이밀었다. 수많은 침략전쟁에서 《승리》의 경험을 쌓았다는 미국의 《정예》사단들이 조선전쟁에 투입되었고 제2차세계대전에서 《명성》을 떨쳤다는 이른바 세계적인

《장군》들도 조선에 파견되였었다.

서방군사평론가는 미국 《뉴욕 타임스》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실었다.

《조선전쟁이 왜 실패하였는가. 월가의 상인들이 애초에 북조선을 우습게 여긴것부터가 돌이킬수 없는 오유였다. 그들이 약자인가? 아니다. 전쟁행정이 보여주다싶이 그들은 무장장비는 련세했어도 특이한 전략과 전술, 변화무쌍한 전법에 의거하여 싸우는 강자였다. 미국의 장군들만이라도 때늦게나마 상대한 군통수 김일성장군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격전의 능수라는 점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했다.》

그렇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강철의 령장,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령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풀수 없는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한것은 물론 미제의 아시아침략기도와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저지과란시키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인류평화를 수호하게 되었다.

승리는 지켜야 빛나고 이어가야 영원한 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90년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류레없는 제재와 압박, 군사적위협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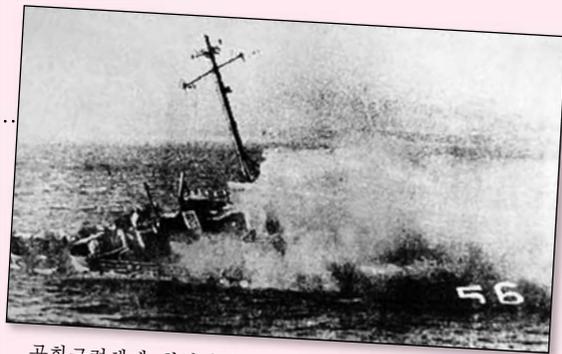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리의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시며 조국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승리의 전통을 아로새긴 조국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따라 대를 이어 승리만을 이룩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임향심



공화국령공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하다가 나포된 미군 1963년 5월



공화국령해에 침입하였다가 격침되는 《경호함56》호 1967년 1월



공화국령공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하다가 격추되는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 1969년 4월



공화국령해에 침범하여 간첩행위를 하다가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선원들 1968년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간첩행위를 인정하고 미국정부의 사죄문에 수표하는 미국측대표

정전이후에도 조미대결은 계속되어왔으며 그때마다 미국은 조선인민앞에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4)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완강한 진지 방어전으로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며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승리의 7. 27을 안아오신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는 호실에 들어섰다.

호실에는 1211고지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영상미술작품이 정

중히 모셔져있었다.

우러를수록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 병사들에 대한 사랑을 지니시고 최전연에까지 나가시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이의 위인상이 어려움을 금할수 없었다.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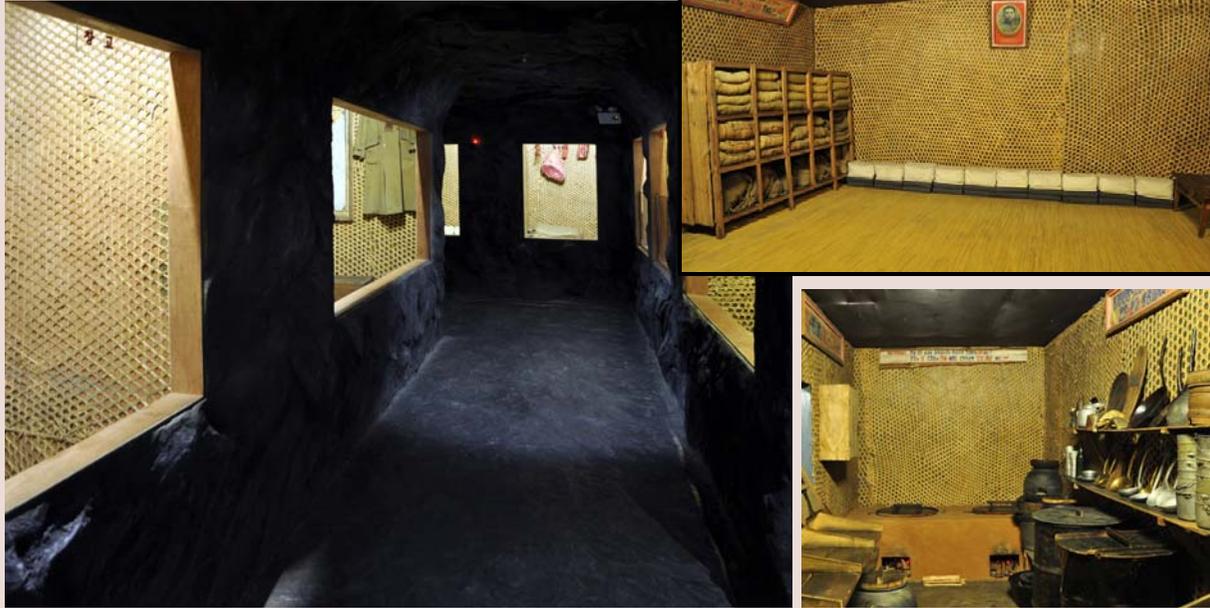
주체40(1951)년 6월에 이르러 전선은 38° 선을 계선으로 기본상 고착되고 전쟁은 장기성을 띠게 되었다.

전쟁 1년동안에 심대한 참패를 당한 미제는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더 많은 병력을 끌어들이면서 전쟁을 확대하려고 발광하였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주라격방향이 1211고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선동부라는것을 간파하시고 몸소 최전연에까지 나가시여 1211고지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워

1211고지쟁도모형



주시였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211고지를 현지지도하신 로정도와 그때 사용하시던 짚안

경, 작전지도와 함께 1211고지방위자들이 한치의 땅도 피로써 지킬 불타는 결의를 담아 그이께 삼가 올린 맹세문, 맹세문에 서명하는 인민군

전사들의 사진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어 참관자들은 18살의 나이에 불뽕는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리수복영웅의 군복과 전투장구, 그가 품고있던 공화국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의 그날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왔다.

격동된 심정을 안고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1211고지쟁도모형을 돌아보았다. 견고하게 구축된 갱도안에는 야장간, 우물, 목욕탕, 콩나물기르는 칸을 비롯하여 전쟁시기이지만 군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다 갖추어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갱도전법이 있었기에 인민군전사들은 적들의 포탄과 폭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속에서도 이런 갱도안에서 학습도 하고 화선악기도 만들었으며 그이께서 보내주신 콩으로 콩나물도 길러먹으면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인것이었다.

참관자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조된 전법들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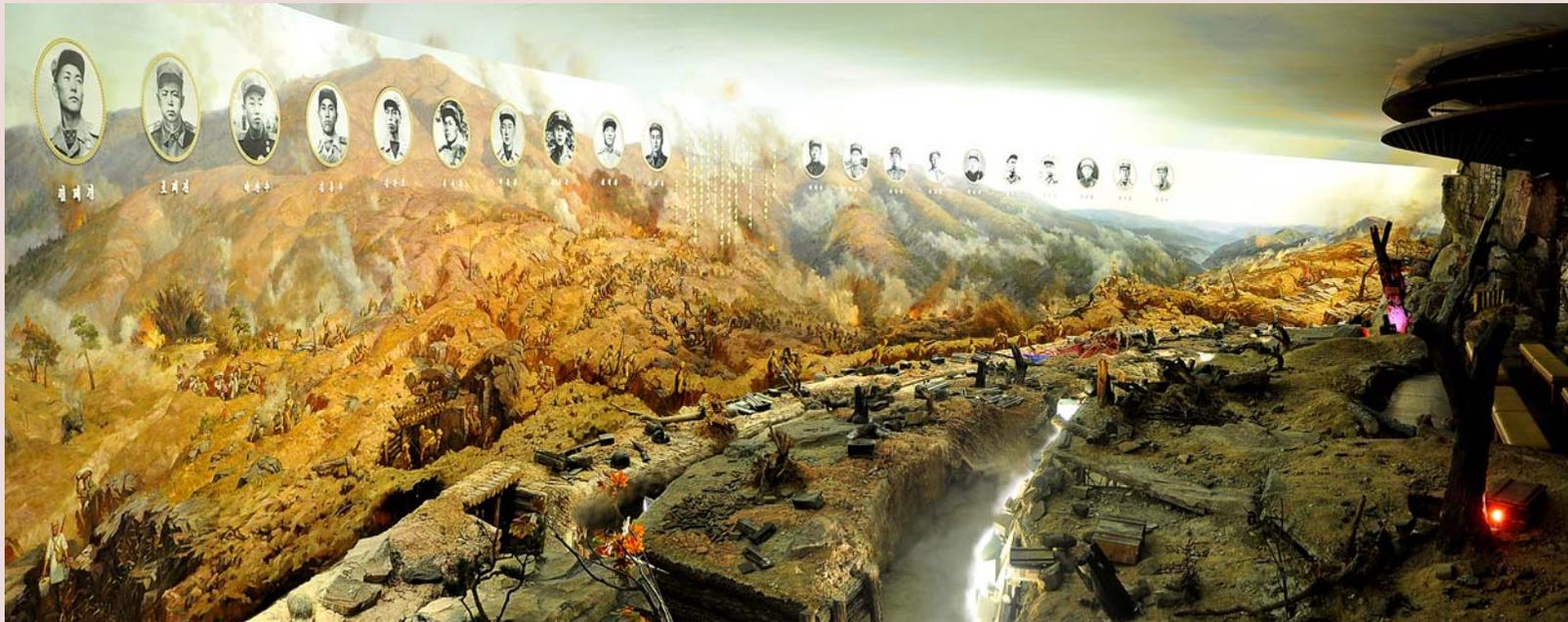
강사는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

동, 기동고사포병중대활동, 직사포조활동 등도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법이라고 하면서 모든 전법들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맞는 가장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전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인민군전투원들이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벌리어 두해동안에만도 적비행기를 수천대나 격추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참관자들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전선원호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린 후방인민들의 투쟁자료들이 전시된 호실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강사는 전선에서 《나의 고지》운동, 복수기록운동, 모범중대운동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질 때 후방에서는 전선의 용사들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의지로 맥박치는 전선원호운동이 전인민적인 투쟁으로 벌어졌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당시 군기금헌납운동과 애국미헌납운동을 통하여 애국적지성을 발휘해온 농민들은 한알의 쌀이라도 전선에 더 많이 보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해 전선원호미헌납운동을 받기하고 앞을 다투어 여유



1211고지방어전투반경화



1211고지에 있던 과편이 박힌 나무(과편자리 127개)



1211고지방위자들의 락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의 일부

곡물과 절약한 량곡을 전선원호미로 바치었다.

호실에는 주체41(1952)년 11월초부터 주체42(1953)년 4월말까지 반년동안에 공화국북반부의 농민들이 모두 참가하였던 전선원호미헌납운동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그런가하면 후방인민들이 전선에 지성어린 수많은 위문품과 위문편지를 보낸 자료들도 구체적으로 전시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군전투원들의 무비의 영웅성, 후방인민들의 불굴의 투쟁

에 의하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품들여 준비한 작전들은 모두 파탄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선에서 거듭되는 된타격을 받은 미제는 더는 헤어나올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주체42(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여 조선인민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게 되었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의 《신공세》를 격파할데 대하여 주신 명령을 무조건 집행할 결의를 다지는 인민군군인들(우)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지켜낼 결의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에 서명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왼쪽)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중심주체조각 《승리》상

호실에는 력사적인 그날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시고 비준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과 주체42(1953)년 7월 28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군중대회에 참석하시여 손을 들어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그이의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진정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의 영예는 걸출한 위인의 탁월한 령도에 달려있으며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다는 진리를 력사의 갈피에 뚜렷이 아로새기였다.

오늘 조국은 또 한분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백승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고있으며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에 넘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김진호

나의 의무는 끝나지 않았다

홍안의 그 시절 손에 총을 잡고 미제를 무찌르는 성전에 나섰던 나도 이제는 93살이 되었다.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남조선의 경기도 수원군이 고향인 내가 서울에서 고향할 때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반공격을 개시한 영웅한 조선인민군은 단 3일만인 주체 39(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완전히 해방하는 놀라운 전과를 이룩하였다.

그때 45만명이나 되는 남조선의 애국적청년들이 의용군으로 전선에 탄원하였는데 나도 그 대오에 용약 따라나섰다.

여러날째 계속되는 강행군,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육체적부담이었다.

당시 부대지휘관이었던 항일혁명투사 김대홍동지는 나를 비롯한 의용군출신 신대원들에게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일제를 쳐부시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그는 나라도 후방도 없던 그 시기 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필승의 신심을 안고 싸웠기에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승리한 조국땅에서 못다한 공부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우리가 믿고 살 품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품이며 그이께서 계시는 평양을 목숨바쳐 지켜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다.

나는 전선동부에 위치한 어느

한 포부대에서 싸우면서 1211고지전투와 351고지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였다.

그가운데서 주체 42(1953)년 6월초 어느날 밤에 있는 351고지공격전투는 오늘도 어제런듯 기억에 생생하다.

351고지는 적들이 조선동해안으로 상륙하는 저들의 부대와 합세하여 아군부대들의 전선익측을 뚫기 위해 2년이상에 걸쳐 견고한 방어진을 구축한 고지였다.

이 고지를 점령할때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군의 한 부대는 이날밤 은밀히 돌격선을 차지하였다.

우리 부대는 그 구분대의 전투를 믿음직하게 지원하기 위해 하루밤사이 수십문의 포를 해체하여 지계에 지고 지정된 고지로 올랐다. 그리고 일제히 포병준비사격을 진행하여 적지랭점과 화력진지들을 진압파괴하였다. 이어 구분대의 전투원들은 강력한 포병화력의 지원밑에 맹렬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전투에서 김인택, 김룡택, 주상하용사들은 미친듯이 불을 토하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는 위훈을 세웠다. 그들이 열어놓은 돌격로를 따라 번개같이 적진에 돌입한 전투원들은 단 15분사이에 고지를 점령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했던 우리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속에서 용사로, 불멸의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자



라날수 있었다. 전승세대의 정신은 오늘날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 로병세대가 혁명의 1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전쟁로병들을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체현한 증견자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하기에 우리 전쟁로병들은 새세대들과의 상봉모임에 자주 참가하여 전쟁시기 전투실화를 이야기해주며 후대들에게 전승세대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고있다.

나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전승세대의 고귀하고 신성한 의무를 다해나갈것이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의암동 72인민반 전쟁로병 김형원

《강대성》의 신화는 깨어졌다



솔직히 말하면 조선전쟁은 커다란 군사적재난이며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적과 싸운 잘못된 전쟁이었다.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렛들리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다.

미국무장관 마셜

나는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군장성들의 말로



포로가 된 뎀



황천객이 된 워커



쫓겨가는 맥아더



논두렁에 주저앉은 릿지웨이

석박산기슭에 피는 꽃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평양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의 석박산기슭에 있는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적위훈을 세운 수많은 인민군렬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그 련사들중에는 유가족이 없는 련사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영웅들이 20살안팎의 애젊은 나이에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촛토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에서 고결한 생을 마치어 혈육 한점 남길수 없었기때문이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은 자식이 없는 이 련사들의 친자식이 되어 휴식일과 주요계기때마다 이곳을 찾아오고있다.

공화국영웅들인 김정식, 김룡택, 김범진을 비롯한 많은 련사들의 자식이 된 평양관광대학의

학생들은 련사들처럼 살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다.

대학의 매 학급에는 《영웅과 나》라는 책들이 구비되어있으며 그 책의 맨 앞장에는 련사의 위훈과 투쟁자료가 기록되어있다.

영웅들의 위훈은 그들에게 삶의 거울로 되고 있다.

그 거울에 자기들의 생활을 비추어보며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다.

그들은 련사들의 생일날은 물론 그들이 전사한 날과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들에도 꽃송이를 들고 묘소를 찾고있으며 련사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고있다.

대학의 5학년 학생인 김유정은 올해 청명에 제 일먼저 묘를 찾아 련사들에게 꽃송이를 드렸고

관리사업도 진행하였다.

2학년 학생인 오정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영웅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쟁취하지 못했거나 마음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리기심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감히 이곳에 올라 김룡택영웅의 얼굴을 마주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웅의 후손답게 공부를 더 잘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이들뿐이 아니다.

서성구역 와산기술고급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림송연, 리선경, 룡수향도 자주 석박산기슭을 찾곤 한다.

그들은 소학교시절 선생님의 손길에 이끌려 련사묘를 찾았던 그때부터 영웅렬사들의 딸들이 되었다. 찾아와서는 련사들에게 그간에 있는 재미나는 일들을 말해주면서 앞으로의 자기 결심도 피력하곤 한다.

특히 림송연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매일

매일 영웅들과 나누는 대화를 일기로 남기며 마음을 자래우고있다.

이렇게 조국을 위해 한목숨 기꺼이 바친 영웅렬사들의 모습은 소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영웅렬사들의 유가족이 되어 명절과 기념일들, 련사들의 생일날과 전사한 날이면 그들의 묘를 찾아와 꽃송이와 꽃다발을 놓고있다.

무드기 놓이는 꽃송이와 꽃다발들, 거기에는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 아니 인민들의 고결한 모습이 다 비껴있다.

석박산기슭에 피는 꽃들.

자연의 꽃은 한계절에 피었다 지지만 후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불같은 맹세로 피워올리는 꽃은 사시절 피어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은 평양관광대학 학생들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고있다.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위민천진의 나날에

로병과 그의 안해가 터친 오열

어느해 12월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한 전쟁로병의 건강상태를 물으시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일군들에게 전쟁로병들을 아끼고 내세워줄데 대하여, 그의 건강을 잘 돌보아줄데 대하여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왔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충직하게 걸어온 그 전쟁로병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며 조용히 방안을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그가 총검진을 언제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들이 검진날자를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그 정형을 자신께 알려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로병의 안해에게 로병이 섭생을 잘하도록 하며 치료시간과 약먹는 시간을 무조건 지키도록 간호를 잘해달라는 자신의 부탁과 인사를 전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었다.

이 사실을 전해듣고 형언할수 없는 감격에 휩싸인 로병과 그의 안해는 오열을 터치었다.

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하시며

주체102(2013)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었다.

문주를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형상이 특색있게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기와 공화국기를 형상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1950》, 《1953》이라는 글까지 새겨넣으니 여기가 전쟁

에 참가한 렬사들의 묘라는것이 시각적으로 잘 안겨온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렬사들이 우리 당의 품,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명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우리 당이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로병들에게 하신 당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을 만나실 때마다 오래오래 건강장수하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실것을 부탁하신다.

그이께서 주체110(2021)년 7월 29일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촬영대가까이로 다가오시자 로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를 올리며 그이께 저저마다 대회과정에 느낀 소감을 말씀 올리었다.

그들중에는 근 90살이 된 오늘까지도 예술인재후비육성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녀성전쟁로병교육자도 있었다.

그의 손을 꼭 잡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강하십시오!》라고 거듭 말씀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한 촬영대에서 다른 촬영대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자신께로 물밀듯이 안겨드는 수많은 로병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건강하라고 절절하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었다.

* * *

수정공예

《 개선 》



선물은 수정공예로서 청색갈의 천연수정에 많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치는것을 부각함으로써 조국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고있다.

천연수정으로 4개월동안 정교하게 만든 선물은 높이 45cm, 병입구너비 26.5cm, 병밑너비 23.2cm이며 질량은 23.4kg이다.

선물에는 조국인민들의 모든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전체 조선민족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한마음한뜻으로 부강한 나라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을 바라는 총경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의 어느한 유한공사 총경리인 해외동포가 드린 선물
주체101(2012)년 1월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예로부터 해외동포들은 민족이라는 대하에서 휘뿌려진 작은 물방울로 비유되어왔다.

하다면 우리 동포들이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조선사람이라는 긍지를 안고 보람있는 삶을 누려가게 된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는가.

돌이켜보면 지난날 그 누구보다도 수난이 많았던 조선동포들이었다.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망국의 비운이 드리운 고향산천을 떠나 이역땅에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실음과 눈물을 한두마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것이다.

이러했던 조선동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은 운명과 미래를 맡긴 은혜로운 품이었다.

그이께서는 해방된 이듬해에 력사적인 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어 조국은 강대한 위력으로써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동포들을 돌보아줄것이며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동포들을 따뜻이 맞아들일수 있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이역땅의 전체 재일동포들을 무한한 걱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였고 아버지수령님의 력사적서한은 민족적차별과 멸시로 얼어든 재일동포들의 가슴을 따뜻이 녹여준 사랑의 해빛이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존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주체적립장에서 분석하시고 조선사람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더라도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로선전환의 방침을 제시하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자주적인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 일본땅 한복판에 해외교포대학인 조선대학교가 세워지고 조국에서 해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뿐만 아니라 민족약기들까지 보내주게 된것은 겨레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때문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해외동포들을 민족의 당당한 성원으로, 한

집안의 식솔로 여기시며 온갖 믿음과 육친의 사랑을 다 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변함없이 보내주도록 하시였고 대지진으로 동포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위문전문과 거액의 위문금을 보내주시였으며 죽어서도 조국땅에 묻힐것을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헤아려 평양에 해외동포애국자묘를 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의 동포애적사랑은 재중, 재로, 재미, 재카나다동포들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해외동포들에게도 뜨겁게 베풀어졌다.

그이께서는 동포들이 민족의 아들딸답게 살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국에서 주요 명절들을 맞을 때면 그들을 경축행사장들에 불러주시어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생일상도 차려주시였다. 그들이 백두산과 금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명승지들에서 휴식하도록 하시였으며 몸이 불편해하면 조국의 이름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지난날 조국과 민족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조각의 민족적량심, 겨레를 사랑하고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절감하는 사람이라면 따뜻이 품에 안아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 품에 안겨 인생의 전환을 하고 값 높은 삶을 누린 해외동포들은 조국통일상수상자인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다.

절세 위인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한없이 숭고한 인간애, 민족애의 력사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몇해전 4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을 맞이하는 대학안의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조국인민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내주시였다.

이렇듯 해외동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신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였기에 조국이 해

수 기

사랑의 기념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집에는 가보로 여겨오는 한상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4살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겨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색동저고리를 입고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독차지한듯 기쁨에 겨워 스스럼없이 그이의 품에 안기었던 때로부터 수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보시고 그처럼 기뻐하시며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되라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오는것 같아 절로 눈시울이 젖어드는 것을 금할수 없습니다.

제가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그날은 주체78(1989)년 12월 31일 밤이었습니다.

뜻깊은 그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시기에 앞서 나와 여러명의 어린이들을 만나주시였습니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인사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차례차례 저희들의 재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커다란 붓을 자그마한 손에 쥐고 종이우에 그림을 그리는 나의 앞으로 다가오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나의 미숙한 그림솜씨를 마지막까지 보아주시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완성된 그림을 삼가 올리면서 《아버지원수님,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그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이께서는 못내 대견해하시며 참 용라고 나를 치하해주시였습니다.

꼬마재간둥이들의 솜씨를 다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우리들이 그린 그림과 서예작품을 가지고 가서 보시겠다고, 이 어린이들과 하루종일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모두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자신의 몸가까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기뻐 발을 동동 구르며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행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알수 없었던 철부지 어린시절에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성장한 나날은 그대로 사랑으로 이어진 나날, 행복으로 이어진 나날이었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아래 나는 그후 인디아에서 진행된 3차례의 국제아동미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아동미술전람회들에서 상장과 금메달을 수여받았으며 금성학원(당시)과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은 대학교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비옥한 토양과 함께 태양의 밝은 빛과 열이 있어야 알찬 열매를 맺을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나의 성장의 걸음걸음마다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주시며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이의 하늘같은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나라의 미술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평양미술대학 조선화학부 인물화강좌 교원 한성일

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세계의 정치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침략전쟁과 내전으로 수많은 이민문제가 산생하든 우리 동포들은

존엄높은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슴펴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합작은 불가능한가?

(전호에서 계속)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량세봉의 부대가 우리와 손을 잡는것을 제일 두려워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독립군이 합작을 이룩한다는것은 곧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에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정치군사적통일이 실현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적들에게 큰 위협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의 헌병, 경찰기관들과 특무조직들은 량세봉을 살해하고 독립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를 계획적으로 추진시켰다. 이 음모에는 봉천헌병대도 가담하고 조선총독부 후쿠시마기관도 망라되었다. 《일본관동군 특무기관 동변도유격대》도 량사령을 감시하고 미행하였다.

량세봉을 살해하기 위한 작전기밀비로 10여 만원의 돈이 투하되었다는 말도 있다. 박창해를 비롯한 홍경의 밀정들도 이 작전에 동원되었다.

적들은 량세봉사령을 유인할 계책을 꾸미던 끝에 평소부터 그와 관계를 가지고 독립군을 협조해주던 배신자 왕가를 파견하였다. 어느날 왕가는 량세봉을 찾아와 중국항일군이 독립군을 원조하기 위하여 사령을 만나려고 한다고 회유하였다. 량세봉은 중국항일군이 원조를 약속한다는 말에 그만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왕가를 따라 항일군이 기다리고있다는 대립자로 향하였다.

왕가는 로상에서 문득 권총을 뽑아들고 《나는 이전날의 왕명번이 아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일본군에 항복하라.》고 하였다.

량사령이 왕가에게 벽력같은 호령질을 하면서 무기를 꺼내들자 수수밭에 매복하고있던 적들은 선손을 써서 일제사격으로 그를 살해하

였다.

최일천이 묘사한것처럼 《〈계림(조선)의 별은 받아도 왜왕의 작록은 먹지 않는다.〉는 박제상의 충언》이 그대로 사령의 혼이 되어 원썩들을 질겁케 하였던것이다.

량사령이 만일 좀더 일찌기 련공의 길에 나섰더라면 그의 운명이 달리될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다. 물론 그의 죽음을 애달파하는 한가닥의 미련일것이다.

《나는 죽어서 항일을 할수 없지만 너희들은 살아서 김일성사령을 찾아가라. 살길은 그 길밖에 없다!》

량사령은 부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유언이라기보다도 반공의 벽을 부시고 뛰쳐나온 한 애국자의 죽음으로 탄생된 련공선언이었다.

이 선언을 따라 4년후에는 통화거리에서 우리를 환영하던 300여명의 독립군대원들이 최윤구사령을 앞세우고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기 위해 백두산으로 찾아왔다. 그때 나는 화전에서 그들을 만났다.

환인현의 조선사람들은 적들에게 량사령의 시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을뒤산에 그의 유해를 평토장으로 안장하였다. 평토장이란 지평면과 무덤의 높이가 동일한 봉분을 쌓지 않은 평평한 묘를 말한다.

일본군경들은 그 묘마저 파헤치고 고인의 머리를 베어 통화시가에 걸어놓았다.

량사령의 유가족들도 모진 학대를 받았다. 그들은 일만군경들의 박해에 시달리다 못해 량가성을 김가로 고치고 철도에서 천여리나 떨어진 환인현의 심산벽촌에 들어가 두더지같은 생활을 하였다.

나는 해방후 남만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량사

령의 유가족들을 조국에 데려오게 하였다. 그 일군을 따라 사령의 부인(윤재순)과 아들딸, 사위가 조국으로 나왔다.

《아주머니, 그동안 사령님을 잃고 일본군경들에게 내내 쫓겨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내가 첫인사로 이런 말을 하자 윤재순녀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동안 어깨를 떨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얼굴을 보니 쌓였던 설움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쫓겨다니는거야 무슨 큰 고생이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쫓아내시느라고 고생이 막심하셨겠습니다.》

《싸움을 하느라고 바빠 보내다니니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해 죄송스러웠습니다.》

《장군님,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산중에서도 장군님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장군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국의 원혼이 된 령감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군 했습니다.》

《그렇지만 량사령은 마지막힘을 다할 때까지 굴하지 않고 잘 싸웠습니다.》

그후 우리는 량사령의 아들 량의준을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시키었다.

4월남북련석회의때 이 학원을 참관한 김구선생은 거기서 량사령의 아들을 만나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나는 북조선당국이 빨찌산투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학원에서 독립군사령의 자제까지 공부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학원에는 빨찌산의 자녀들뿐 아니라 국내에서 로조, 농조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한 애국자라면 그가 어떤 계렬이든지 우리

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김구는 감격하여 《이 학원은 민족단합의 상징입니다!》 하고 말했다.

학원을 졸업하고 공군부대의 정치일군이 된 량의준은 전후에 비행기사고로 사망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락망하였다. 량사령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량의준은 아들 하나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 아이의 이름을 량철수라고 하였다. 그런데 철수는 소아마비의 후파로 불구의 몸이 되었다.

당에서는 그를 인민학교에도 보내고 고등중학교에도 보내고 대학에도 보내어 14년동안 건강한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마치게 하였다.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니는 4년동안 그의 동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밀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며 17층에 있는 교실까지 오르내리었다. 애국선렬들에 대한 우리의 2세, 3세들의 존경심은 불구의 유자녀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표현되었다. 지금 량철수는 공화국의 당당한 현역작가가 되어 침상에서 문학작품을 써내고있다.

량철수에게는 2남, 1녀의 자녀들이 있다. 혈통을 따지면 량세봉의 증손자, 증손녀들이다. 추석명절이 오면 그 애들도 부모를 따라 애국렬사릉에 있는 증조할아버지의 묘를 찾아가군 한다. 그들은 아직 자기네 증조할아버지의 생애를 엿어매고있던 고뇌와 불행이 무엇이었던지를 알지 못한다.

그 천진한것들의 어깨우에 다시는 반공이나 련공이나 하는 무거운 짐이 실리지 않기를 바란다.

(끝)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기 위해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높은 비료생산실적으로

-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종업원들이 비료생산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기업소에서는 가스발생로 3호와 산소분리기 2호를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비료생산능력을 확장하였다. 방대한 능력확장공사를 끝낸 기업소에서는 3기의 가스발생로와 3대의 원심순환압축기, 2기의 산소분리기 동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비료생산을 확고한 장성단계에로 올려세웠다.

비료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원료직장에서는 급탄 및 분쇄공정을 합리적으로 갱신한데 이어 그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있다. 한편 버력에 섞인 석탄을 모조리 회수이용하는 등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가스발생로와 보이라들에 질 좋은 무연탄을 보장하고있다.

발생로직장에서도 앞선 기술로 원료의 질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받아들인데 기초하여 매일 많은 무연탄과 전기를 절약하면서 가스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수소와 질소, 산소생산을 맡은 직장과 암모니아생산을 담당한 직장들에서도 공정간연계를 강화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혁신은 노소직장과 흥남영양액비료공장에서도 일어나고있다.

노소직장에서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로동자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데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는가 하면 흥남영양액비료공장에서는 집단적경쟁을 세차게 벌리면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차남철



경공업발전을 추동한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의 연구사들이 과학연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생산현장들에 나간 연구사들이 여러 연구성과로 새 제품개발과 제품의 질개선, 원가절약에 기여하고있다.

몇해전 평양곡산공장에 나간 식료공학부의 연구집단은 새로운 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생산공정을 확립하는데서 선차적이면서도 어려운 연구과제의 하나가 낱알전처리공정이었다.

연구집단은 이 공정에 대한 세계적추세를 깊이 연구하고 공장내의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새로운 생산공정 확립을 위한 이들의 열의속에 낱알전처리공정을 비롯한 다른 공정들도 련이어 완성되게 되었다.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려놓은 결과 낱알편튀기, 코코아밀편튀기 등 6종에 24가지의 새 제품들이 생산되게 되었다.

그 나날 이들은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힘을 합쳐 원료정량공급기, 유탁기, 자동포장기

를 비롯하여 35종에 40여대의 설비들도 개발하여 공장의 생산토대를 보다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곳 대학의 연구사들은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실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설비들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실패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저않고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하여 그들은 분무건조식젓가루 생산설비를 비롯한 선진적인 젓가공설비들을 연구제작하게 되었으며 전국의 식료공장들에 널리 도입하였다.

류원신발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가방공장 등 여러 경공업공장들에 나간 연구사들의 성과도 크다.

일용화학공학부의 연구사들은 류원신발공장에서 가죽의 이김성을 개선할수 있는 약재를 개발

도입하였다. 뿐만아니라 유압재단기의 자동화를 실현한데 이어 신발창도막제를 연구개발하여 신발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한편 방직공학부의 연구사들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재생섬유방직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여러가지 용도의 열접착부직포를 생산할수 있는 전망도 열어놓았다. 그리고 견-토끼털혼방실생산방법과 재생오리털섬유와 재생폴리에스테르섬유로 보온솜편을 제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도 마련하였다.

경공업성 국장 김관익의 말에 의하면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에서 거둔 과학연구성과들을 도입한 많은 단위들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고있으며 그 과정에 인민들이 선호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공장들에서 생산된 경공업제품들은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23과 봄철전국상품전시회-2023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연구사들의 노력은 그대로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영은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현실에서 제기되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있는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의 연구사들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서



평양화장품공장서



선교편직공장서

상식

가루음식의 좋은 점

가루음식은 다른 낱알음식보다 소화가 매우 잘되므로 그만큼 영양물질흡수도 잘된다.

밀가루는 중조를 보하고 장위를 든든하게 하고 기력이 세지게 하며 오장을 돕는다. 오래동안 먹으면 몸이 든든해진다.

밀을 가루내어 빵이나 국수를 만들어먹으면 소화흡수율이 95%로서 밥을 지어먹을 때보다 20% 더 높아진다.

강냉이는 통강냉이로 먹으면 소화흡수율이 30~40% 밖에 안되지만 가루를 내어 국수를 늘려먹으면 그 흡수율이 90%이상 된다.

* * *

옥류아동병원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옥류아동병원은 아기들의 고교성이 울려 퍼지는 평양산원과 마주하고 있다.

병원이 일떠선 때로부터 지난 10년간 이곳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옥류아동병원에는 심장혈관외과, 뇌신경외과, 복부외과, 소생과, 호흡기내과, 피부과, 회복치료과, 기능진단과 등이 있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병원에는 젊고 실력이 있는 의료일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곳 의료일꾼들은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선천성심장병환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난치성질병환자들을 회복시켰다.

최근에는 평양산원에서 531번째로 태어난 세쌍둥이의 막내인 두달잡이 전선정어린이의 심장수술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뿐만아니라 중독성소화불량증으로 의식을 잃었던 젓먹이어린이를 18시간만에 소생시키고 10여년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만성중이염환자를 새로운 수술방법으로 완쾌시키었다.

병원은 임의의 치료예방단위들과 림상정보자료들을 교환할수 있는 병원정보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이미 주체107(2018)년에 10대정보화모범단위로 되었다.

병원에서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로 1만 수천회의 먼거리협의 및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지방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소생시키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종종 병원에 와있다는 생각을 잊곤 한다.

그것은 건물주변에 동심에 맞는 각이한 주제의 조각상들과 야외놀이장이 있고 병원내부에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동화그림들이 무려 1720여 점이나 장식되어있기때문이다.

병원에는 교실도 있어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중학교학생들이 입원기간에 공부를 할수 있다.





치료실



소학교학습실



기능회복실



옥류아동병원의 의료일군들과 환자들의 부모들은 이러한 환경과 조건들이 아이들의 병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옥류아동병원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해주시고 몸소 병원의 이름도 지어주시었으며 병원이 아동의료봉사기치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시었다.

언제인가 병원을 찾았던 많은 동포들은 만약 다시 태어날수 있다면 이곳에 입원하고싶은 생각이 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려해
사진 본사기자 김평

평양광학기술사



손님들의 시력과 기호, 취미에 맞는 안경들을 봉사하고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동에 위치한 평양광학기술사는 전문적인 안경봉사기지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산뜻하고 규모있게 진렬된 다종다양한 안경매대들과 아늑함을 주는 봉사환경을 보며 자기가 찾는 안경이 여기에는 꼭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체75(1986)년에 창립된 평양광학기술사는 지금까지 인민들의 높아가는 문명수준에 이바지하는 봉사기지로 손꼽히였고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안경의 테만 하여도 손님들의 개성적요구를 만족시킬수 있게 재질과 모양, 색깔이 다양할뿐만아니라 안경알 또한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가지이다.

평양광학기술사의 경영방식에서 특징적인것은 안경기술봉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것이다. 물론 이 기술사에는 현대적인 시력검사설비들과 안경가공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어 안경기술봉사의 과학성, 신속성을 보장하고있다. 하지만 기술사에서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종업원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 안경기술봉사의 질을 제고하고있다.

하여 이곳 판매원들의 봉사성은 구매자들의 성별과 나이, 체격과 얼굴형, 얼굴색과 취미

등에 따르는 과학적인것으로 일관되게 되었다.

판매원들의 수준은 구매자들과 마주한 첫순간에 벌써 그의 심리까지 꿰뚫으며 거의나 정확한 안경테와 알을 선택해주는 정도로 높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김상주사장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1980년대중엽 그는 안경이 기호품의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한 리해도 부족할뿐 아니라 선진광학기술자료도 매우 적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하여 그는 이 분야에 정통하기 위해 안과부문은 물론 광학과 재료학, 생산과 교정, 가공과 상업 등의 지식을 터득해나갔다.

전문가들과 어깨를 겨룰만큼 실력을 갖춘 김상주는 종업원들에게도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으며 기술강습을 통해 그들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나갔다.

이곳 종업원들은 과학기술보급실의 자료기지에 세계적인 최신광학기술자료들과 자기 단위와 다른 안경봉사기지들의 기술자료들을 분류하여놓고 그것을 통한 학습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결과적으로 모든 판매원들의 기술실무수준이 높아졌으며 안경기술봉사의 질이 현저히 높아지게 된것이다.

지금 평양광학기술사에 오는 손님들은 기술사의 현대적인 설비와 함께 이곳 종업원들의 과학적이고 친절한 안경기술봉사를 받으니 더 즐거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미지의 세계를 파헤치며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 학생으로서 학계의 주목을 끌었던 추봄향은 오늘 박사원생이 되었다.

2022년 네델란드에서 발간하는 SCI급국제 학술잡지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 5학년생이었던 추봄향이 투고한 논문이 실리었다. 논문은 당시 력학분야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있던 상마당모형화에서의 계산정확도를 담보할수 있는 기준을 밝힌것으로 하여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것은 봄향이 국제력학계에 두번째로 선을 보

인 논문이다.

그는 2021년에도 영국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잡지 《공학에서 수치법》에 상마당모형과 관련한 첫 연구론문을 발표하였었다.

이 잡지로 말하면 SCI급중에서도 가장 급수가 높은 부류에 속하는것으로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자들의 논문을 실고있는데 투고된 논문의 과반수가 심사과정에 기각될 정도로 문턱이 대단히 높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잡지에 력학을 전공한지 4년밖에 안되는 봄향이 투고한 《준취성재료의 파괴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개선된 상마당모형》이라는 논문이 실리었다는 그자체가 놀라운것이였다.

상마당모형은 확산된 균렬에 대한 개념에 기초하여 파괴모의해석문제를 수값적으로 푸는 과학연구분야이다. 상마당모형과 관련한 연구는 지난 2010년대부터 력학계에서 주요론제로 제기되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그는 대학에서 력학을 전공하는 과정에 이에 대해 알게 되었다.

봄향은 력학분야의 이 미지의 세계를 다름아닌 자기가 밝혀낼 결심을 하고 연구에 달라붙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 리혜련녀성은 《대학 4학년때부터 봄향이에게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생활의 모든것, 심지어 성격도 변한것같았다. 정말이지 그때의 봄향이는 가정에서 곧잘 응석을 부리던

막내가 아니였다.》라고 회상하였다.

이 나날 그는 대학적인 수재로서의 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연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주요연구과제의 하나인 준취성재료의 파괴특성을 짚은 시간에 예측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그는 보다 연구를 심화시켜나가면서 제기되는 과학적문제들을 하나둘 해결하였다.

그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해 방대한 연구과제는 빠른 시간에 종결될수 있었고 봄향은 그에 대한 논문을 영국에서 발간하는 SCI급국제 학술잡지인 《공학에서 수치법》에 발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과정에 그는 또 하나의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상마당모형화에서 계산정확도를 담보할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것이였다. 하여 그는 그 해결을 위한 연구에 달라붙게 되었다.

선행문헌들이 제시한 수많은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로부터 도출한 새로운 실머리를 과학적으로 정립하여 해당한 기준을 찾아내야 하는 연구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또 대학생으로서 과정안에 따르는 학습과제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저와 멈춤을 몰랐다.

그가 기울인 노력이 있어 드디어 상마당모형화에서의 계산정확도를 담보할수 있는 3가지 기준이 밝혀졌으며 그에 대하

여 서술한 논문이 2022년 네델란드에서 발간하는 SCI급국제 학술잡지에 발표될수 있었다.

자만과 담보를 모르는 그는 더욱 분발하여 력학분야에서 현실적의의가 큰 연구과제수행에 달라붙어 올해초 SCI급국제 학술잡지에 세번째로 되는 논문을 투고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력학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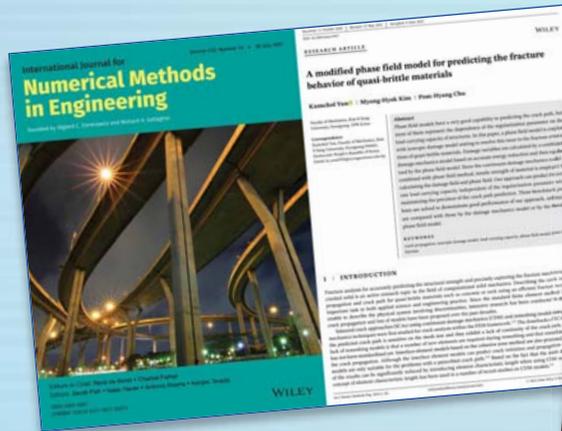
23살의 봄향이가 대학시절에 투고한 세번째 논문을 세계력학계가 어떻게 평가하겠는지...

올해 4월 대학을 졸업한 추봄향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에 다니면서 력학발전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계속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온 가족이 막내딸의 연구성과를 축하해주고있다.



추봄향의 논문을 실은 2021년에 발간한 영국잡지(왼쪽)와 2022년에 발간한 네델란드잡지(오른쪽)



꿈이 많으면 좋은가 나쁜가? 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꿈은 신경계통의 특수한 반응이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꿈을 교란시키는 실험을 수없이 진행하였다.

어느한 나라의 연구사는 꿈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 CT검사를 해본 결과 두뇌에서는 경한 출혈현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 생리학자는 연구과정에 사람의 대뇌에는

꿈없는 수면렙티드와 꿈꾸는 수면렙티드가 있다고 하면서 꿈꾸는 수면렙티드를 성공적으로 분비시키고 물질을 실험동물에 주입시킴으로써 그것들의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꿈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보장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생리적인 현상이며 잠을 잘 때 꿈이 많으면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것을 보여준다.

* * *

꿈과 건강

부부체육교원의 지향

평양시 중구역에는 구역이 자랑하는 부부체육교원이 있다.

체육명수인 남편 김정철은 중구역 동성초급중학교에서, 공훈체육인인 아내 리윤미는 중구역 동안소학교에서 체육교원을 하고 있다.

동성초급중학교와 동안소학교는 축구소조운영을 잘하여 구역과 시는 물론 전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한것은 지난 기간 압록강체육단 축구선수로 활약하면서 국가종합팀에도 망라되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들부부가 지금은 이 학교들에서

축구소조를 활발히 운영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학생들에게 축구기초기술을 가르치는것을 긍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어린 학생들이 축구를 사랑하도록 하고 우승으로의 첫걸음을 떼어주는것은 나라의 축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다.》라고 리윤미는 말하였다.

윤미는 선수생활을 마치고 체육단 감독도 할수 있었지만 자진하여 소학교체육교원이 되었다.

그는 소조원들에게 높은 요구

성을 제기하고 그들과 함께 운동장을 달리며 축구기초기술동작들을 보다 정확히, 빨리 습득시키기 위해 수십수백번의 반복 훈련을 주었다.

윤미의 아름다운 지향과 헌신적인 교육자적태도에 매혹된 정철은 선수생활기간 남몰래 사랑의 마음을 터놓았으며 그로부터 몇달후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윤미를 언제나 말없이 떠밀어준것은 남편 정철이었다.

윤미가 체육교원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김형직사범대학 체육학부에서 공부하고있던 정철



은 그에게 축구기초교육과 관련한 도서들을 가져다주며 훈련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이 있어 축구소조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3년이 지나서부터 동안소학교 축구소조원들은 구역과 시적으로 진행되는 경기들에서 우승의 자리

를 양보하지 않았다.

윤미의 아름다운 지향에 자신의 뜻도 따라세우고싶었던 정철은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교단에 먼저 선 안해처럼 스스로 축구선수후비육성의 길에 나섰다.

그는 안해가 키운 축구소조원들이 소학교를 졸업하고 초

급중학교에 진학할 때면 그들을 맡아 한단계 높은 축구기술을 련마시켰다.

정철이 축구소조를 운영한 다음해부터 동성초급중학교는 구역적으로 세차레나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평양시적으로도 무시할수 없는 실력을 떨치게 되었다.

김정철은 주체108(2019)년에 진행된 전국교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동안소학교 축구소조원인 9살난 이들부부의 아들 청룡이도 부모들의 뒤를 이어 앞으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 포부를 안고있다.

김정철, 리윤미부부는 조국의 명예를 빛내이는 미래의 축구선수들을 키워가는 길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칠 하나의 지향을 안고 오늘도 푸른 잔디우를 달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해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학생들과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리윤미



중구역 동안소학교
교원 리윤미



중구역 동성초급중학교
교원 김정철



경기대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있다.



퇴근길에서 아들과 함께

현대알록반죽자기와

유관준

세상사람들은 고려자기라고 하면 누구나 청자기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고려자기에는 이 청자기뿐 아니라 완전한 독자적개성을 가진 희귀한 알록반죽자기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로 이 알록반죽자기에

대한 새로운 제조술이 완성되어 주체107(2018)년 10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역사의 이끼속에 묻힐뻔한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되살려낸 사람은 당시 함경북도 미술창작사 도자기제작실 실장으로 사업하던 70고령의 유

관준이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그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평양미술대학에서 공부하던 어느날 강의시간에 11세기-12세기에 조선민족이 창조한 문화유산들중의 하나인 고려알록반죽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문화재말살책동으로 귀중한 문화재보가 영영 자취를 감추었다는 강의는 그의 마음속에 못처럼 박히게 되었다.

그렇수록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재보인 그 자기를 꼭 제손으로 다시 만들리라 결심하였다.

그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미술박물관 등을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고려알록반죽자기에 대한 단 한개의 자료도 얻을수 없었다. 다만 얻은것은 오래전에 퇴색된것으로 보아지는 고려알록반죽자기를 찍은 사진 몇장뿐이었다.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밤길을 가는 심정이였다.

하지만 그는 《집을 짓자면 기초가 든든해야 하듯이 고려자기를 만들자면 고려자기제작기술에 대하여 정통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며 자기 자신에게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고 나약해지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도자원료와 유색, 성형소성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기 위하여 전국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찾아 부지런히 길을 걸었다.

이 나날 그는 함경북도미술창작사 도자기제작실 실장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실장사업을 하면서도 그는 알록반죽자기를 제조하기 위한 사업을 단념하지 않았다.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흘러갔다.

끊임없는 사색과 실험과정에 그는 한가지 재료만으로 제조하는 일반자기와는 달리 알록반죽자기는 성분이 서로 다른 2~3가지이상의 원료들을 배합하여 성

고려(918년-1392년)시기에 청자기와 검은자기, 진사상감자기와 함께 독자적인 개성을 가지고 출현하였던 알록반죽자기는 고려시기에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만 생산되었으며 제조술은 복잡하고 까다로와 그 비방이 널리 전해지지 못하였다.



유관준



형방법으로 제조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청진광산금속대학 연구사들의 사심없는 방조를 받으면서 그는 마침내 새로운 소성법과 원료분석법을 밝혀냈다.

현대알록반죽자기가 훌륭하게 완성된다는 유관준의 노력만이 깃들어있지 않다.

그의 안해와 두 아들, 며느리들을 비롯하여 온 일가가 연구사였고 실험조수였으며 성형공이었다.

안해인 김춘옥녀성은 연구의 나날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이 끝이 있는 길을 가고있는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떤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에만 전념할까 하는 생각도 했

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길이기엔 끝까지 가고 또 갔습니다.》

이렇게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마침내 유관준일가는 고려알록반죽자기를 계승한 현대알록반죽자기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

우아하면서도 독특한 형태와 색깔, 구름과 바람, 물결과 나무결을 형상한 무늬가 살아숨쉬듯 라래치며 비반복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양들이 조화되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동하는 기상을 안겨주는 현대알록반죽자기는 주체96(2007)년 2월에 있는 국가미술전람회에 전시되어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근 천년만에 다시 찾은 이 알록반죽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민족의 문화재보를 지키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량심으로 간직

하고 스스로 이 사업에 수십년 세월을 묵묵히 바쳐온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찬탄하였다.

지금도 유관준은 왕성한 정력을 안고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조선민족고유의 도자기들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성익

알록반죽자기제조술은 주체 107(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유관준과 그의 가족들이 창작완성한 알록반죽자기들의 일부



두 아들과 며느리들도 알록반죽자기제조에 전심하고있다.



사람은 안아주고 키워주는 품이 있어야 생을 값있게 빛나게 살수 있다. 이역땅에서 민족적 차별과 멸시를 받아오던 내가 의학박사로 될수 있는것은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기였기때문이다.

평양의학대학 립상연구소 연구사 박사 부교수 리영은

얼마전 평양의학대학 립상연구소 소화기연구실 연구사 박사 부교수인 리영은녀성은 75살을 맞이하였다. 자식들과 제자들, 동료들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로당익장하여 사업에서 계속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축하의 인사를 받은 그날밤 그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자욱들을 새삼스레 돌이켜보았다.

일본 야마구찌현의 자그마한 오막살이집에서 태어난 그는 11살때까지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린시절 그의 꿈은 예술체조

를 배우는것이였다. 하지만 일본땅에서는 조선사람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하여 그것이 실현될수 없었다.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그는 비로소 자기의 꿈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었다.

조국에서는 그의 꿈을 귀중히 여기여 평양학생소년궁전무대에서 마음껏 춤추도록 해주었다. 이 과정에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여러 차례나 공연하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전국적인 예술체조경기들에서 11개의 금메달을 받았다.

보답의 일념을 안고 걸어온 의학연구의 40여년



고령의 나이에도 새 약품개발에 전심하고있는 리영은

따뜻한 조국의 보살핌속에서 중학교(당시)를 졸업한 그는 그후 평양의학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졸업후에는 대학의 연구사로 인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하게 되었다.

특히 다시마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다시마의 약효능을 중시하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린 그는 여러 질병들의 치료와 예방에 특효가 있는 다시마짜탁약, 다시마복방쾌양산, 다시마등근알약 등을 개발하였다.

쉽게 이룩된 성과가 아니였다. 그는 조선동해와 서해안의 여러곳을 편답하였고 때로는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여러 시간동안 다시마를 줍기도 하면서 지역별, 계절별에 따르는 다시마의 약용성분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10년이나 지속되었지만 그는 조국에 흔한 다시마로 효능높은 약을 개발할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모든 고생을 달게 여기였다. 이렇게 되어 마침내 다시마를 주원료로 한 의약품이 개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몸소 친필서한도 보내주시였으며 유능한 의학자로 성장하도록 따듯이 이끌어주시였다.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그는 실장, 의학박사, 부교수로 성장하였고 전국과학자

대회와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지닐수 있었다.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클수록 그의 보답의 마음도 커만 갔다.

리영은박사는 60대에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내걸고 연구에 달라붙었다.

사실 그때 나이도 적지 않은 그가 성공의 빛을 쬐 볼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여러 광산들을 찾아다녀야 하고 광물질성분들을 분석하는데도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 연구사업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여간만 힘에 부친 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것을 이겨내면서 광산들에서 쓸모없이 버려지던 버럭에서 6가지 생리활성영양제와 70여종의 광물질을 찾아내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활성천연종합광물질 《생명11》을 개발하였다.

제3차 전국교육부문 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활성천연종합광물질 《생명11》은 체력을 증진시키고 피로회복과 어린이들의 키크기를 촉진하는것은 물론 면역계통과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생리기능을 높여주는것으로 하여 이상적인 약품으로서 뚜렷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리영은이 집필한 도서들의 일부

화강석산지로 유명한 고장



석재의 질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있는 광산로동계급
-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

예로부터 룡강군이라 하면 화강석산지로 유명하다.

지금도 군에 있는 오석산화강석광산, 룡강화강석광산을 비롯한 여러 광산들에서는 많은 화강석

을 채취하여 가공하고있다.

천연석재는 군의 룡호리, 후산리, 옥도리일대에서 나오는데 특히 룡호리의 해발고가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있는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많이 생산되고있으며 수출하기도 한다.

얼마전 우리는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에서 살고있는 황복성의 조카 황광섭이 있는 오석산화강석광산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읍에서 얼마쯤 가느라니 온통 화강석으로 둘러싸여있는 광산의 모습이 보이였고 그 아래쪽에 아담하게 꾸러진 광산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마을에는 유치원과 학교, 진료소 등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소박하면서도 편리하게 꾸려져있었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광산마을에는 불량식도 구색이 맞게 되어있어 밤경치도 불멋이 있다고 한다.

이어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는 광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우리는 이곳 일군인 박광선의 안내를 받으며 원석채취작업이 한창인 광구로 올랐다. 축구경기장 여러개를 합친것만큼이나 드넓은 광구들에서는 자행식대절기가 기운차게 돌아가고있었으며

유압식기중기차들이 집체같은 원석들을 화물자동차에 옮겨내고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생산경쟁에서 뒤자리를 차지하던 원석3직장이 덩지큰 광구를 개발한 기세드높이 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그뒤를 원석1직장이 바짝 따르고있었고 앞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원석2직장도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광산일군은 이러한 집단적경쟁열풍속에 원석생산이 종전보다 1.5배로 뛰어오르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생산장성의 비결은 다름아닌 영웅지배인이 목표를 대담하게 세우고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찾아 완강하게 내밀고 원석직장들과 연마직장에서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선데 있다고 긍지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쟁은 언제나 앞장에서 내달리는 원석2직장을 따라잡기 위한 경쟁으로 되군 하였는데 아마 이번에도 원석2직장이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원석2직장은 영웅직장장의 헌신속에서 생산과 설비관리, 생활문화 등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광산의 모범이 되고있었다.

산처럼 쌓인 원석덩이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원석2직장장 김상근은 나라에서는 우리 광산을 본보기로 내세워주었는데 그 믿음에 보답하자면 아직 멀었다고 하였다.

혁신은 연마직장에서 일어나고있었다.

직장에서는 설비를 증설하고 기술혁신을 다그쳐 가공능력을 배로 높이었다. 가공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토의할 때 일부 사람들이 현존설비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광산의 지배인과 연마직장장 등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난관을 돌파해나가자고 하였다고 한다. 하여 그들은 대절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다듬돌가공공정에도 새기술을 도입하여 로력을 절약하면서 돌가공량을 늘일수 있게 하였으며 제품의 질을 개선하였다.

광산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남편들의 뒤받침을 성실히 하고있는 광부안해들의 수고도 적지 않다. 광산의 높은 생산성과속에는 이들의 땀방울도 슴배여있었다.

광산에 대한 취재길의 마지막장소인 제품직장에서 우리는 다시금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각종 크기의 천연석재들이 높이 쌓여있었고 천정기중기가 실새없이 오가고있었으며 제품을 싣고 떠나는 화물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있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조국의 벽찬 숲길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다름아닌 이곳 오석산화강석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자기들의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그 숲길을 더해주고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 광산이 화강석산지로 유명한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취재지로 향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만고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비망록 -

(전호에서 계속)

수치도 모르는 《법치국가》의 진면모

민족교육의 합법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1970년대전반기까지 조선학교들이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르는 《각종 학교》로 인정되었으나 일본당국은 교육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적장치들을 내올 때마다 조선학교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저들의 졸렬한 모습을 세계앞에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일본당국이 지방자치체 관리들을 내세워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선학교들에 할당하게 되어있는 교육보조금을 각종 리유와 구실을 붙여 삭감하거나 완전정지한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2010년 3월 12일 오사카 조선고급학교에 나타난 당시 오사카부지사 하시모토는 조선학교의 교육내용, 총련과의 관계를 걷고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조건》과 교육보조금을 맞바꾸려고 어리

석게 놀아댔다. 학교측이 이를 강력히 거부하자 하시모토는 2011년 4월에 25년이상이나 지급되어온 교육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정지해버리었다.

그후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가나가와현지사 구로이와, 지바현지사 모리타, 사이다마현지사 우에다를 비롯한 극우익적인 지방자치체 우두머리들이 련달아 조선학교의 교과서내용과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구실로 교육보조금을 정지, 삭감하였다.

2016년 3월 일본문부과학성은 아베의 지시에 따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류의점에 대하여》라는 통지를 도, 도, 부, 현지사들에게 보내어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삭감과 정지를 공개적으로 강요하였다.

일본당국은 총칼이 못한것을 돈이 해결한다는 저들의 《지론》을 《고등학교무상

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실행을 통하여 립증해 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2009년 9월 일본자민당패거리들은 《국민의 리해》와 《교육내용검토》를 전면내내 걸고 《조선학교는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공화국의 체제를 뒤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일 의혹이 있다.》고 혈투하면서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을 결사반대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오사카부지사 하시모토를 비롯한 지방자치체들에 틀고앉은 극우보수분자들도 만일 정부가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별도로 판단하겠다.》, 《공금을 지출하지 않겠다.》고 고아댔다.

2012년에 일본문부과학성 시모무라는 아베의 지시에 따라 2013년 고등학교지원대상과 관련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조선고급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로 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도록 내리

이와 함께 지방재관소들을 사족하여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아무런 법적론기도 없이 기각해버리는 불법무법의 횡포를 감행하였다.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5차례에 걸쳐 조선고급학교들을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 포함시키며 일본자치체들의 보조금지급을 재개 및 유지할것을 권고하였지만 그때마다 일본당국은 그 무슨 《랍치문제》등을 걸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일본당국은 《각종 학교》라는 리유로 조선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도 배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말살하기 위한 너절하고 유치한 책동이다.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당국의 차별행위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 더욱 저속하고 유치하게 감행되었다.

일본 사이다마시당국은 2020년 3월 시안의 보육원, 유치원 등에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조선학교에 배포한 마스크가 《전매될수도 있다.》고 떠벌이며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유치반만을 제외시키는 차별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일본당국은 2020년 5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확대

와 관련하여 《학생지원긴급지급금》조치를 실시할 때에도 유독 총련 조선대학교교만을 제외시켰다.

현재 재일동포들은 일본국민들과 똑같은 세금납부의무를 걸머지고 성실히 리행하고 있으므로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해당하는 몫의 교육비를 지불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는 동전 한푼도 내지 않겠다는 고약한 심보로부터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국고부담》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다.

외국인들에게 자국민들과 똑같이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국제인권협약의 주요내용이다. 유엔아동권리선언에도 《어린이는 누구라 할것없이 기초교육단계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국가의 의무로 된다.》라고 명기되어있다.

일본당국도 2019년 5월에 개정된 유아교육, 보육지원법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란하게 광고하였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신성시되어야 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민족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추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것도 모자라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췌버리고 순진한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동심에 무참히 칼질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소위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의 진면모이다.

이에 대해 이전 일본문부과학성 차관까지도 최근 《일본에서는 차별을 일으키는 언동을 국가가 출선 하고 있다.》, 《권력자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감정을 가지고있다. 제도로부터 배제한다는 결론이 먼저 있고 후에 배제하기 위한 리유를 붙이고있다.》라고 하면서 만민에게 공정해야 할 법을 차별의 무기로 휘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고 빼앗을수도 없는 신성한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홍정물이 될수 없다.

일본속담에 뱀은 자기 독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은 안으로 문을 닫아걸고 불을 지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

만일 일본당국이 고삭은 군국주의 《몽둥이》로 끝끝내 총련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 한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며 영원히 미래가 없는 차거운 얼음덩이로 력사에 매장되게 될 것이다.

(끝)

고 려

고려는 우리 나라 천년강국이었던 고구려를 계승하고 단일민족으로서 하나의 강토에서 살려는 겨레의 숙망을 완성한 첫 통일국가이다.

918년 왕건에 의하여 후삼국들중의 하나였던 태봉국을 전복하고 세워진 고려는 1392년까지 474년간 존재하였으며 발전된 문화수준으로 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고려의 역사는 1170년 무신정변을 분기점으로 하여 크게 두 단계 즉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건국초기 왕건은 나라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고려》라고 부르고 《천수》라는 자체의 고유한 년호를 제정하였으며 수도를 철원으로부터 오늘의 개성으로 옮기고 그곳을 개경이라고 불렀다.

고려는 고구려의 지향을 계승하여 나라와 겨레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고려는 후삼국의 각축전속에서 생겨난 각지의 지방방군세력들을 포섭하는 신축성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신라를 끌어들이고 후백제에 대한 강경정책을 실시하였다. 만아들 신검의 정변으로 왕자에서 물러난 후백제왕 견훤에 대한 우대정책은 신라의 귀순을 다그치게 하였으며 마침내 935년 11월 신라는 고려에 투항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고려는 936년 6월 일리천(경상북도 선산군)전투에서 후백제군을 최종적으로 격멸

하고 후삼국의 통합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926년 동쪽의 나라인 발해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고구려의 옛땅인 서북지방을 차지하여 자기의 령토를 넓혀나갔다.

이리하여 고려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라와 겨레의 통일을 실현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국토통일을 이룩한 고려는 봉건통치체제를 정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 10세기말-11세기초에 봉건적통치체도를 기본적으로 완비하였다.

고려는 이 시기 강력한 국력과 인민들의 애국투쟁에 의하여 세차레에 걸친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조국의 강토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냈다. 그후 고려의 대외적위신은 훨씬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전쟁승리후 고려는 1033년부터 12년동안 압록강어구로부터 함경남도 정평까지를 편결하는 천여리의 긴 성(고려장성)을 쌓았다. 또한 외적의 침입을 격멸소탕하고 1107년-1108년에 동북지방에 9개의 성을 쌓음으로써 고구려의 옛땅을 수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편 12세기에 이르러 대토지소유자들의 세력이 자라나고 통치층안에서 권력싸움이 격화되어 봉건적통치질서에 혼란이 조성되었다.

고려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무신정권이 출현하고 외적의 침입이 계속되는 속에 봉건적억압과 착취가 강화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반침략, 반봉건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고려인민들은 13세기중엽부터

수십년동안에 걸쳐 외적의 침입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 승리를 쟁취하였다. 또한 14세기중엽이후 집요하게 계속된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고 북쪽으로부터 침입한 외적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벌려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냈다.

고려시기에는 문화발전에서도 특기할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우선 출판인쇄기술이 발전하여 《팔만대장경》과 같은 방대한 량의 불교경전출판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가 사용되었다. 고려의 인쇄기술자들은 이전시기에 창조된 목판 및 목활자인쇄기술의 성과에 토대하여 12세기전반기에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은 금속활자사용에서 앞섰다고 하는 유럽보다도 300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또한 세계중세도자공예사상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고려자기를 내놓았다. 특히 고려청자기는 도자공예의 극치를 이룬 문화적재보로서 세상사람들의 경탄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밖에도 천문기상관측기술, 건축, 조각, 금속공예, 문학과 예술, 미술 등 문화의 모든 부문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화약제조방법에 기초한 화약무기제조기술이 발명, 도입되어 1380년 왜구를 격멸소탕한 진포해전에서 그 위력

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싸움배에 화포를 장비하여 실전에 도입한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 고려가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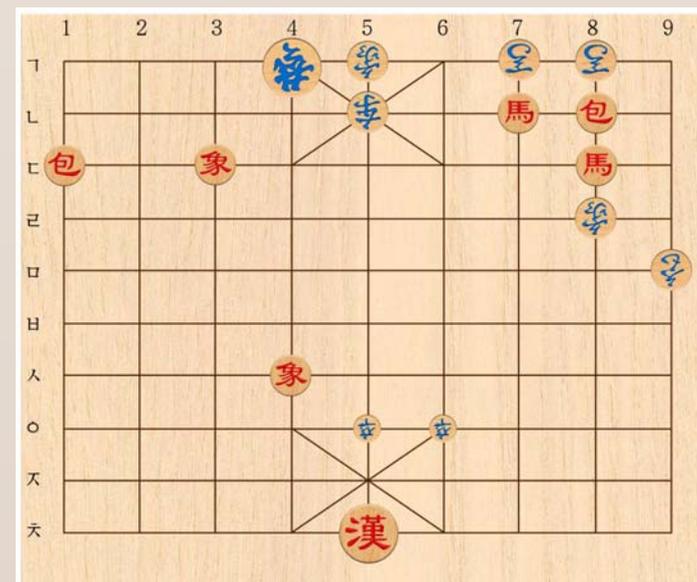
이러한 높은 문화발전수준에 토대하여 고려시기 대내외상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가운데서 레성강어구에 있던 항구인 벽란도를 통하여 송나라와 동남아시아나라들, 지어는 멀리 대식국(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무역이 적극 진행되었다. 또한 벽란도부터 개경까지 30여리구간에 큰 상업거리가 형성되어 가게(상점)들과 민가들이 처마를 맞대고 즐비하게 편결되어있어 비오는 날 그 처마밑을 따라가면 비를 맞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11세기에 이곳을 통한 무역활동이 성행하였는데 고려의 화가 리녕이 그린 《레성강도》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과정에 고려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외국어로 고려를 의미하는 꼬레야(로어), 코리어(영어), 꼬레(프랑스어), 코레아(도이칠란드어), 꼬레아(에스빠냐어)로 불리우면서 자주성이 강하고 용감하며 재능있고 문명한 조선, 조선민족을 가리키는 국제적용어로 보급되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교수 박사 주성철



장기수풀이 (7)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격언

깨진 독 만지기

기울어진 형세를 그 어떤 수로써도 바로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 말은 한수한수를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있다.

장기수풀이 (6)에 대한 답

ㄷ2상ㄴ4, ㄴ2말ㄷ4, ㄴ4상ㄷ7,
ㄷ4말ㄷ2, ㄷ5포○5, ㄴ4궁ㄷ4,
ㄷ1차ㄷ1, ㄴ5말ㄷ3, ㄷ6말ㄷ4,
ㄷ2말ㄷ4, ㄷ4말ㄷ2, ㄷ4말ㄷ2,
ㄷ2말ㄷ3, ㄷ2말ㄷ3, ㄷ7상ㄴ4,
장훈

사실주의 풍경화가 정선

금강산을 사랑하고 금강산에 대한 그림을 많이 남긴 정선(1676년-1759년)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 그의 집에서 귀한 손님을 맞게 되었는데 그림밖에 모르는 가난한 살림인지라 안해는 온전한 치마가 없어 이웃집에 가서 비단치마를 빌려입게 되었다. 그런데 한창 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오던 안해는 그만 문턱에 발이 살짝 걸리는 바람에 국그릇이 기울어져 치마폭에 국물이 튕겨 얼룩지게 되었다.

안해의 얼굴은 금시 홍당무로 되었고 손님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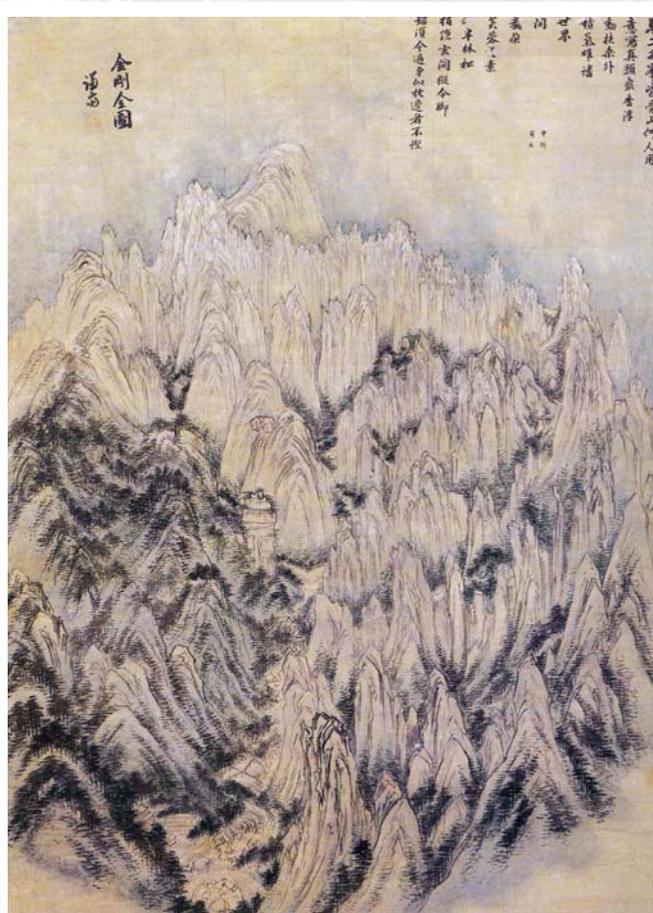
보다도 치마를 더럽힌 걱정이 더욱 컸다.

손님이 돌아가자 안해는 치마를 급히 벗어 행주로 닦아도 보고 물로 씻어도 보는 등 무진 애를 다 썼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안해는 방구석에 앉아 한숨만 짓고있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정선은 안해에게 사연을 물었다.

안해의 말을 덩덤히 듣고있던 정선은 이왕 그렇게 된 일이니 치마를 뜯으라고 했다. 녀인은 큰일이나 난것처럼 안된다고 하였지만 남편은 뜯으라고 다시 일렀다.



《금강산전도》 (130.6×94.1cm) 종이·담채



《옹천의 파도》 (101×47cm) 비단·먹

그리하여 안해는 남편이 속궁리가 있는것으로 알고 치마를 뜯어 깨끗이 빨아 말리웠다. 하지만 얼룩자리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것을 본 정선은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이더니 며칠 아무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트라만 오가는 것이었다.

안해는 임자가 치마를 찾을것만 같아 속이 조마조마했으나 정선은 무엇인가 골똘히 사색에만 파묻혀있을뿐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며칠이 지나 해가 밝게 비치고 새들이 정답게 지저귀는 이른아침 정선은 기분이 좋아 푸른 하늘을 넋없이 바라보더니 안해를 찾았다.

《여보, 그 치마를 얼른 가져오오.》

그는 치마폭을 마루에 반듯이 펴고 천천히 붓을 들어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치마폭에는 금강산 1만 2천봉우리가 거연히 솟아오르고 비단필을 늘인듯한 폭포수들과 그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소들이 잠간사이에 나타났다.

힘을 주어 붓을 당기기만 하여도 그 얼룩자리는 씻은듯 자취를 감추고 기암절벽이 하나씩 솟아오르는데 정말 희한한 광경이었다.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안해조차도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정선은 안해가 치마를 뜯어 빨아놓은 후 며칠사이에 그림의 구도를 구상하였던것이다.

오늘 바로 머리속에 그려졌던 금강산이 치마폭에 그대로 옮겨졌다.

그후 며칠이 지나 치마를 빌려주었던 옆집녀인의 남편이 불일이 있어 정선의 집에 잠시 들리었는데 들어서자바람으로 벽에 걸린 그림에 그만 정선이 온통 팔렸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금강산을 그대로 옮겨놓은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숨씨가 놀랍다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외국의 어떤 사람이 <원컨대 고려국에서 태어나 금강산을 단 한번이라도 보고 죽는다면 한이 없겠다.>고 하였는데 이 그림만 보아도 우리나라 금강산이 천하명산인줄 알게 될것입니다.》

그러자 정선은 자기의 구차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사실 금강산을 비단천에 그리고싶었는데 좋은 비단이 없어 그리지 못하고있었지요. 그런데 다행히 부인의 치마가 우리 집에 와있는것을 보고 그림그릴 생각이 간절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금강산의 1만 2천봉우리를 옮겨놓았으니 이 딱한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아니, 무슨 말씀을... 그 치마가 이 그림의 비단천이 되었다면 정말로 다행한 일이옵니다.》

정선은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고는 그림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옆집주인은 굳이 사양하는것이였다.

하지만 정선은 좋은 비단에 금강산을 그리고싶던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면서 기어이 치마를 주인에게 돌려주고야 말았다.

정선은 1676년 몰락한 량반의 아들로 출생하였는데 자를 원백, 호는 겸재, 란곡이라고 불렀다.

집안이 가난하다보니 정선은 어릴 때부터 굶은 일, 마른일을 가림없이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것에 개의치 않고 그림에 뜻을 두고 몰두하였다.

그는 잠나는대로 붓을 들었고 일을 하다가도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을뿐 아니라 밤에도 그림에 열중한 나머지 밤을 지새우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림은 그릴수록 더 그리고만싶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리고싶은 마음은 간절하였다.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산천을 바라볼 때 이처럼 아름다운 고장에서 태어난 공지로 가슴이 흐뭇해왔다.

그는 하루종일 일을 하다가도 밤이면 등잔불밑에서 낮에 본 풍경들과 자기가 받은 인상을 더듬으면서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정선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보여주는 사실주의적풍경화들을 많이 그렸는데 《박연폭포》, 《구룡폭포》, 《옹천의 파도》, 《만폭동》, 《옥류동》, 《너럭바위》, 《인왕산》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는 순수 자연환경만 그린것이 아니라 풍경화에 인물들을 등장시켜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그들의 모습을 형상한 《가야금타는 로인》, 《봄비》, 《소나무밑에 홀로》, 《물소리를 들으며》 등도 창작하였다.

정선은 근 60년간이나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벌렸는데 80살까지 하루도 쉬임없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듯 정선은 17세기말~18세기중반기 사실주의풍경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우리 나라 풍경화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실주의적화가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칠보산 내칠보의 아침



칠보산 (1)

- 내칠보 -

칠보산은 함경북도의 조선동해안 남부에 있는 명산이다.

칠보산의 동쪽은 조선동해, 서쪽은 길주-명천지구대, 북쪽은 경성만에 흘러드는 어랑천과 그 지류인 화성천, 남쪽은 조선동해와 화대천을 경계로 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다.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어난 풍치로 하여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알려졌으며 산 이름도 진귀한 일곱가지의 보물에 비기어 칠보산이라고 지어졌다.

예로부터 철따라 아름답게 단장되는 칠보산의 경치를 두고 봄이면 백화만발한 《꽃동산》,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 《록음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피는 《홍야산》, 겨울에는 흰눈으로 은빛단장한 《설백산》이라고 불리웠다.

특이한 자연환경을 이루고있는 칠보산은 금강산, 묘향산과 같이 조국의 이름난 명승지의 하나이다. 특히 칠보산은 경치가 아름다운데다가 온천까지 있어 더욱 유명하다.

칠보산은 지역별특성과 참관로정에 따라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지역으로 나뉘어진다.

내칠보지역에는 칠보산의 내원동을 비롯한 박달령동쪽지역의 일부가 포괄된다. 여기에는

수많은 봉우리들과 기묘하고 색다른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어 장엄하고 황홀한 산악미를

나타내고있을뿐 아니라 그 절경을 관망할수 있는 개심대, 승선대, 해망대 등이 있어 관광에



내경대의 기묘한 바위들



배바위와 사공바위



승선대에서 본 삼봉이암

삼봉이암은 만개의 절이 쌓여 이루어진것같다는 만사봉, 그옆의 천불봉과 종각봉, 부처의 제자 라한들이 뭉쳐있는것같다는 라한암, 원숭이바위를 말한다.

매우 편리하다.

이 지역은 참관로정에 따라 개심사, 상매봉, 내원, 이선암구역으로 구분된다. 내칠보의 중심을 이루는 개심사구역

에 들어서면 칠보산에서 널리 알려진 내칠보의 삼봉이암, 제일명산으로 이름난 금강봉과 금강굴,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가 안해와 상봉하는것과 같은 부부

바위, 의자까지 갖추어 무대우에 올려놓은듯한 피아노바위를 볼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신통히기와집과 초가집을 련상시키는 기와집바위와 초가집바위를 비

롯하여 그 옛날 효성이 지극한 소년이 아홉마리 룡의 위험도 물리치고 금강골의 산삼을 캐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담겨진 금강폭포와 구룡담 등의 이름난

명소들도 보게 된다. 그가운데서 이채를 띠는것은 만사봉, 천불봉, 종각봉과 라한암, 원숭이바위로 이루어진 삼봉이암이다. 지난 시기 오봉으로 불리웠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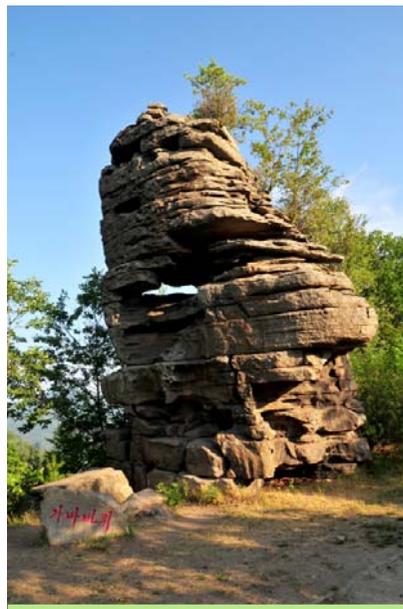
이 삼봉이암은 그 모양이 서로 달라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풍치를 펼쳐보여 내칠보의 장관으로 손꼽힌다. 그런가 하면 그 옛날 칠보산의 자연풍치가 하도 아



피아노바위



부부바위



가마바위



농부바위

름다워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놀다가 다시 하늘로 오르던 곳이였다는 승선대에 오르면 내칠보의 삼봉이암, 부부바위, 만월대와 무희대를 비롯하여 이름난 명소들을 한눈에 볼수 있다.

상대봉구역은 개심동으로부터 상대봉일대의 명소들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칠보산의 주봉인 상대봉과 각이한 모양의 기암들로 하여 색다른 경치를 보여주는 조롱봉을 비롯하여 각이한 모양을 가진 바위들과 명경암, 상례암, 금강사터를

비롯한 명소들이 있다.

예로부터 산이 높아 늘 구름이 걸린다고 하여 운무산으로 불리웠던 상대봉에 오르면 내칠보와 외칠보의 웅장수려한 봉우리들과 기암들, 계곡들의 전경을 다 볼수 있다.

상대봉서쪽기슭에는 칠보산 풍치가 하도 아름다워 이곳에 왔던 한 무관이 죽어서도 칠보산에 묻히고 싶어 상대봉에서 자결하였다는 전설을 담은 그의 묘가 있으며 그옆에는 그가 타고왔던 말무덤도 있다. 새조롱

처럼 조롱조롱 매달려있는듯한 기암들이 있다고 하여 조롱봉으로 불리우는 이 봉우리의 산발들에는 일만대적과 맞서 싸우는듯한 장수바위, 투구바위, 거인암, 책바위, 룡바위를 비롯한 명소들과 칠보산의 일만경치를 그림에 담아 펼쳐놓은듯한 병풍바위도 있다.

내원구역은 기암괴석들이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있는 명승지이다.

여기에는 온갖 새와 각이한 짐승들의 모양을 이룬 바위들로



개심사 개심사는 826년 발해시기에 처음 세워졌으며 지금의 건물은 1784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내칠보계곡의 겨울



하여 널리 알려진 금수봉이 있는가 하면 그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는 반월봉, 범의 아가리를 런상시키는 호구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듯한 해불바위를 비롯한 봉우리들과 기암들 그리고 홍수기에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보이는 기당폭포와 비류담 등 이름난 명소들이 있다.

이선암지역은 세존봉과 그 동쪽의 덕봉과 그 주위에 이루어진 명소들이 포괄되는 명승지이다.

이곳에는 이 구역을 부감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진 전망봉, 절간의 종이 서서 넘불을 외우다가 이선암경치에 매혹되어 돌아갈 생각조차 잃고 돌로 굳어졌다는 중바위, 보면볼수록 기묘하게 생긴 군선암 등으로 불리우는 명소들로 장관을 이룬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혁철
김성철, 위동명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